2014 한 · 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 참관기

과학기술과 휴머니티를 위한 한 · 유럽 컨퍼런스

글_최경일

프랑스 유텔셋 시스템 엔지니어
kevin.k.choi@gmail.com

글쓴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졸업 후 영국 써리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텔레콤파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우주국, 독일의 유럽기상위성센터 연구원을 거쳐, 2000년부터 프랑스 유텔셋 통신위성기업에서 인공위성 시스템 사양, 제작감리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2011년부터 EKC에 학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유럽 컨퍼런스 EU-Korea Conference(이하 EKC)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비엔나 대학교 상경대학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Science & Technology and Humanity(과학기술과 휴머니티)'라는 부제를 걸고 개최된 이번 7번째 EKC는 2008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첫회 행사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4개국의 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과협)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왔으며, 그 밖의 유럽 과협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올해에는 행사장이 위치한 재오스트리아 한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오과협, 회장 한만욱)가 주관을 하였고, 유럽의 3개국 과협, 즉 재독과협(회장 석준원), 재영과협(회장 김진일), 프랑스과협(회장 정광희)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회장 이부섭)가 공동 주관을 하였다.

EKC, 유럽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

올해의 행사에는 400여 명의 연사와 참석자, 그리고 이들의 동반가족까지 포함하여 총 6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으며, 유럽의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중 하나가 되었다. 모든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한 EKC 행사 준비위원회는 재오과협의 한만욱 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재오과협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됐으며, 주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수십명의 자원봉사 도우미·행사 진행 요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EKC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학술위원회는 지난 2011년 프랑스 대회 때부터 유럽의 여러나라에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로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2014년의 학술위원회는 박종문 학술위원장과 이태권 학술위 간사의 조율하에 건축, 동반성장, 생명과학, 에너지·환경, 자

연과학, 재료과학, 정보통신, 항공우주·기계 분야에 산·학연계를 책임지는 스페셜 세션까지 총 9개 분야 47명의 학술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올해의 EKC 학술위원회는 기존의 주관국가 4개국을 포함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와 러시아 과협 소속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EKC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 항공우주·기계 분과장으로, 그리고 동반성장 분과의 세션장으로 학술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산업시찰 프로그램 및 산업 포럼

EKC의 개회식은 7월 24일 아침에 개최됐지만, 이미 22일과 23일에 산업시찰 프로그램과 산업포럼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첫째날의 행사인 산업시찰에서는 오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비엔나 외곽 신개념 위성도시 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3개의 서로 다른 분야 방문에 참여하였다. 오후 방문 프로그램에는 환경기술 분야, 이동성,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관방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산업시찰 프로그램은 오스트리아의 관련 전공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기관·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필자는 환경기술 분야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비엔나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 및 소각장 방문과 하수처리 시설들을 방문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 컨퍼런스 분야별 발표 세션 및 포스터 발표

오전의 개회식 및 기조강연을 마친 뒤, 곧바로 한·유럽 컨퍼런스의 정규 학술발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학술발표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다양성에 맞추어 7개의 세션들이 진행되었다.

총 8개 전문 분야에 130명의 발표자와 스페셜 세션(한·유럽 R&D 협력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에서 11명이 발표하였고, 90여 개의 포스터 발표까지 포함하여 200명이 넘는 발표자들이 24~25일 이틀간의 학술 프로그램에서 진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진행된 후원기관·단체들의 소개 및 리크루팅 면접 운영까지 600여명의 참가자들이 시간을 쪼개 모든 관심분야 세션과 후원기관 부스 방문을 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참여열기를 과시하였다.

▸▸ EKC2014 산업시찰
비엔나 외곽 신개념 위성도시 개발사업 현장 방문

가족 프로그램 및 저녁 만찬

유럽의 가족중시 전통을 이어 올해의 EKC에서도 가족 프로그램과 만찬이 준비되었다. 가족 프로그램으로 동반가족들의 비엔나 및 주변 도시 방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비엔나의 과학박물관과 수족관, 자연사 박물관 등 청소년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24일 만찬은 포스터 발표 세션과 함께 진행되었다. 식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인사를 나누고, 포스터 발표에 참여하며 저녁 늦게까지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25일의 만찬은 비엔나 시청의 중앙 홀에서 진행되었다. 중앙홀을 가득 메운 6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수 포스터 발표자들의 수상식과 EKC를 통해 한·유럽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한인과학기술자들의 표창장 수상식 및 올해 행사를 주관한 오스트리아 행사 준비 및 진행 요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재불과협의 정광희 회장이 2015년도 행사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유럽 한인 과학기술자의 표창장 수상식에는 독일의 이보현 박사, 영국의 김도원 박사, 오스트리아의

▸▸ 25일의 만찬
왼쪽부터 재독과협 석준원 회장, 재영과협 김진일 회장, 프랑스과협 정광희 회장

강명주 박사, 그리고 프랑스의 전창훈 박사가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유럽의 한인과학기술자로서 한·유럽 과학기술교류에 공헌하고, 각자의 전공분야활동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부분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녁 식사와 본행사가 끝난 후, 모든 참석자들은 시청의 중앙 홀에서 오스트리아의 왈츠를 배우며 즐거운 파티를 즐겼으며, 내년도 EKC 행사에서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며, 올해의 행사를 마감하였다.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기 모금 운동 및 경품추첨

유럽의 한인과학기술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동반성장 연구회 I-DREAM(Inclusive Development Research Association for Mankind)는 작년에 이어 올해 EKC에서도 동반성장 전문분과 세션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의 행사 기간 중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했는데, 재오과협이 행사 찬조 물품을 제공하고, 협회 회원들이 추가로 경품을 제공하여 모금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행사를 열었다. EKC 행사기간 중 기부금을 걷고,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는 모든 EKC 참석자들 및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품권을 배포하였다. 경품추첨은 비엔나 시청 만찬장에서 식사 후에 진행됐으며, 총 9명이 노트북 컴퓨터, 최신형 휴대폰 등 경품당첨의 행운을 누렸다.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교류의 장 EKC

EKC 2014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유럽 국가의 한인과학기술자들 및 유럽 현지 과학기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연례 과학기술 컨퍼런스로 자리매김을 했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도 유럽의 한인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크기의 행사로 성장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행사의 내용을 책임져온 학술위원회의 활동에 힘입어 과학기술 분야의 발표 세션에서 전문성이 돋보였다.

특히, 독일이나 영국 등 이웃국가에 비해 거주하는 한인과학기술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스트리아에서 재오과협의 모든 집행부 임원들, 회원들이 한만욱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된 팀웍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많은 숫자

▸▸ 과학기술 공헌자의 표창장 시상식
왼쪽부터 이보현 박사, 김도원 박사, 강명주 박사, 전창훈 박사

의 도우미·행사진행요원들의 단결된 조직력이 본 행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과학교실,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만찬 등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제 7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나름의 행사 개최 노하우와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된 EKC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위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고민해 본다. 유럽에는 현재 EKC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4개국 과협 이외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온 회원들이 모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들이 존재한다.

유럽의 구성이 그러하듯이, 각 국가별 과협들은 소속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한인 과학기술자들이면서도 거주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함께 EKC라는 공동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상호 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편, 유럽의 과협들과 함께 공동으로 EKC를 주관하는 과총에도 지리적인 거리를 극복하여 함께 행사를 준비하는 공동 주관자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유럽과 한국의 과학기술 교류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된 EKC는 주로 과총의 지원, 기타 한국 및 유럽 기관과 기업들의 후원 및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7번의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유럽의 4개국 공동주관 과협의 회장들은 행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회 이상 한국 및 유럽의 연구기관·학계·산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전체 행사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고정예산 지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개최국의 과협 회장으로서 EKC 행사의 조직위원장 역할을 하는 경우, 행사의 준비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수개월간 본인의 일상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각자 전문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 한인과학기술자들에게 EKC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주관하는데 순수한 자원봉사 수준 이상의 참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가 행사 주관의 전문가가 아니며,

▸▸ I-DREAM 협회의 기부금 모금 및 경품 추첨을 담당한 임성우, 최영옥 회원부부가 만찬장에서 기부금 및 경품권 추첨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이득을 보지도 않는다. 본인의 전공에 따른 일상업무가 있는 만큼,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준비 관계자들의 본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도록 요구하는 현재의 행사 준비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EKC를 위해 첫째는 기본적인 행사 예산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준비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작부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의 불확실성 및 전문 행사 준비요원의 부재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범유럽 차원으로 결성되어 EKC 행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학술위원회는 앞으로도 행사의 학술프로그램만을 담당하면서, 참여 학술위원들의 전공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상설기관의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문분야별로 조직되고 있는 범유럽 차원의 전문가 그룹들(에너지 환경 전문가 그룹, 항공우주 전문가 그룹, 재료분과 그룹 등) 이 학술위원회의 참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KC 한·유럽 컨퍼런스는 유럽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행사의 예산과 행사준비를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과총과 관련 부처·기관들, 그리고, 유럽 과협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 학술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행사운영까지 EKC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ST